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개원 74주년...미래 축산 기술 도약 다짐

- 연구 성과 돌아보고 미래 축산 기술 발전 의지 다져
- 우수 직원 포상, 가족 초청 행사...자긍심 높이고 소통 문화 확산
- 생명 존중 가치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 도약 다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개원 74주년을 맞아 5월 7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본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1952년 5월 10일 개원한 이후 가축 개량,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산식품 연구, 동물복지 기술 보급 등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이끄는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축산과학 발전과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우수 전문 연구실과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기관 역사를 되새기고, 연구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축산 기술 발전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의지를 다졌다.

특히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동물복지 확대 등 미래 축산업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미래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앞서 축산 연구와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한 가족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축혼제를 지내기도 했다.

한편, 올해는 직원 자녀들을 초청해 축산홍보관 견학, 실험실 체험, 치즈


시식, 반려동물 먹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행사가 부모 일터를 체험하고 축산과학의 가치를 배우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이 걸어온 74년의 역사는 우리 축산업의 성장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함께 지켜온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업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국립축산과학원 개원 74주년 행사 계획

붙임2. 기관 연혁 및 현황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윤수 (063-238-7150)
		담당자	서기관	김기영 (063-238-7151)
				

붙임 1**국립축산과학원 개원 74주년 행사 계획**

□ 개요

- 일시 : 2026. 5. 7.(목) 13:20~17:00
- 장소 :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전북 완주)

□ 일정

시간	행사내용
13:20~14:00	< 축혼제 > * 분향, 강신, 초헌, 축혼사 등
14:00~14:05	< 개원 74주년 기념식 > • 국민의례
14:05~14:30	• 시상식
14:30~14:35	• 기념사
14:35~14:40	• 2026 축산 연구 우수 영상 작품 시청
14:40~14:50	• 기념 촬영 및 종료
<별도진행> 13:30~17:00	• 축산과학원 키즈데이 행사

붙임 2**기관 연혁 및 현황**

1952.05.	농림부 중앙축산기술원으로 발족
1962.04.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으로 개편
1969.04.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과 농림부 국립종축원으로 분리
1994.12.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을 통합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
2001.01.	책임운영기관 지정 운영
2004.01.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개편
2007.06.	축산연구소를 축산과학원으로 개편
2008.10.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
2015.03.	전북혁신도시로 청사 이전
2016.05.	가금연구소 신설
2019.12.	동물복지연구팀 신설
2024.01.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 신설
2025.01.	동물복지과 신설
2025.02.	직제개편